

보안사고 후폭풍... SKT·KT '매출 급감', LG U+ '실적 개선'

SKT, 해킹사태에 점유율 40% 붕괴 보상 비용·역기지 효과 맞물려

KT, 소액결제 피해에 신뢰도 타격 위약금 면제조치로 31만명 이탈

LG U+, 유일하게 실적개선 전망 인건비 부담 ↓·이동전화 매출 ↑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지난해 있었던 보안 사고라는 대형 악재의 그림자 속에서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을 맞은 SK텔레콤과 KT는 수익성이 둔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LG유플러스는 홀로 성장을 이어가며 '실적 회복'이 선명해 지는 양상이다.

다만, 지난해 통신 3사가 1분기 호실적을 올렸던 만큼 이에 따른 역기지 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자료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SK텔레콤, KT, LG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지난해 있었던 보안 사고라는 대형 악재의 그림자 속에서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어든 1조 3488억원으로 추산된다. 합산매출 역시 15조 779억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기업별로 보면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매출 4조 4015억원, 영업이익 506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0.7%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월 약 2696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유심(USIM) 해킹 사태가 뼈아팠다.

이 사고로 인해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며 무선 점유율 40% 선이 무너졌다. 여기에 유심 무상 교체와 이용자 보상안 마련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지난해 비용 효율화로 거뒀던 호실적에 대한 역기지 효과까지 맞물리며 하락 폭이 커졌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엔 역기지 효과로 SK텔레콤의 연결 영업이익

익은 전년비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이동전화매출액이 증가세로 반전하고는 있지만, 2025년 2분기 영업정지 여파로 전년동기비로는 여전히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T의 상황도 좋지 않다. KT의 1분기 예상 매출은 6조 8156억원, 영업이익은 56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나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9월 불법 소형기지국(뎀토셀)을 통한 정보 유출 사고가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지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더해 연초에 시행한 '위약금 면제 조치'로 약 31만 명의 고객이 다른 통신사나 알뜰폰으로 빠져나갔다.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케팅 보조금 확대 역시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됐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실적 개선을 이뤄낼 전망이다. 1분기 매출은 3조 8604억원, 영업이익은 2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10.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였고, 이동전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 점이 주

효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전화번호 기반' IMSI 생성 체계 논란과 유심 전면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여부는 향후 실적의 변수로 남아 있다.

김연구원은 "서비스매출액 증가와 인건비 감소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및 연간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SKT 영업정지에 따른 상대적 수혜, 비용 감축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클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안 사고로 홍역을 치른 통신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입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했다. KT 역시 최소 1조 원을 들여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정보보안 혁신 TF'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7000억원을 투자해 모든 인프라의 위험을 제거하는 '제로트러스트'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멈춰있던 OTT 통합... KT 변수에 '꿈틀'

티빙·웨이브 합병절차 2년째 중단 KT, 미디어 사업 전반 전략 재정비 웨이브, CJ ENM 출신 인사도 '주목'

KT 변수 변화 가능성에 따라 멈춰 있던 티빙과 웨이브 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임 조짐을 보인다.

7일 OT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시장 재편의 핵심으로 꼽혀온 티빙과 웨이브 통합 논의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년 넘게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주요 주주인 KT의 전략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티빙과 웨이브 통합은 2023년 12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추진됐지만,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후 협상은 이어지지 못했다.



핵심 변수는 KT다. KT는 티빙 지분 약 13퍼센트를 보유한 2대 주주로, 통합 성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동안 KT는 합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과 IPTV 사업과의 관계, 기존 OTT 사업 구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시너지'와 티빙 통합 과정에서의 계약 조건 역시 변수로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들어 변화 가능성도 감지된

다. KT가 미디어 사업 전반을 재정비하면서 OTT 투자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협상 여지가 과거보다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웨이브 내부 변화도 변수다. 콘텐츠웨이브는 최근 CJ ENM 출신 인사를 대표로 선임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통합 논의와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시각과 단순한 경영 효율화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OTT 시장 환경 역시 통합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물러 있다. 두 플랫폼을 합쳐도 글로벌 사업자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빛나 기자 vitna@

네이버-EBS 지식영상 콘텐츠 구축

네이버는 EBS와 지식 영상 콘텐츠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성남 네이버 1784사옥에서 협약식을 열고, 건강과 금융·경제 등 실생활 정보부터 초중고 교과 기반 학습 콘텐츠까지 폭넓은 영상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식 영상 아카이브를 지속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네이버 검색과 유튜브, 지식백과 등 주요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가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AI 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고품질 데이터'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최빛나 기자

삼성SDS, 우리은행 'AI 에이전트 banking' 수주

우리은행 5대 영역, 28개 업무에 적용

삼성SDS는 우리은행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banking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은행의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175개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금융권에서 대규모 AI 에이전트를 본격 적용하는 사례다. 대형언어모델(LLM) 기반으로 고객 응대와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은행은 고객관계관리(CRM)·기업연계, 자산관리, 내부통제, 고객상담, 업무자동화 등 5대 영역 29개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 프로

세스도 에이전트 중심으로 재설계해 처리 속도를 약 3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SDS는 자체 플랫폼 '패브릭스'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플랫폼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언어모델 적용 환경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은 5월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약 90개 에이전트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중장기 IT 인프라 최적화' 사업도 연이어 수주했다. 기존 유닉스 기반 시스템을 리눅스로 전환해 호환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환경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서현 기자

SKT, ESG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론칭

'스케이 포 굿' 참여기업 모집

SK텔레콤은 ESG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스케이 포 굿(SKTC for Good)'을 론칭하고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SKTC'는 SK텔레콤과 기술(Tech)을 결합한 이름으로, 스타트업 발굴과 협업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포용·돌봄, 기후 재난 대응, 디지털 범죄 예방 등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화 멘토링과 교

육, 협업 모델 발굴, 투자 유치 컨설팅, IR 기회, 전시 참가, 사무공간 등 지원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ESG 중심 '스케이 포 굿'과 AI 분야 '스케이 워드 AI'로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스케이 워드 AI'는 7월 출범 예정으로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 15개사를 추가 선발한다.

회사는 2021년부터 ESG 스타트업 78개사를 지원해왔으며, 향후 스타트업 육성과 협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LG U+-IBK시스템, 금융특화 AI 개발 추진

LG U+의 B2B AX플랫폼 활용

LG유플러스는 IBK시스템과 금융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AI 기술과 IBK시스템의 금융 도메인 역량을 결합해 여신 심사,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AI 에이전트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금융 업무 효율성과 보안 수준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발에는 LG유플러스의 B2B AX 플랫폼이 활용된다. 해당 플랫폼은 워크에이전트 기반 업무 혁신 체계로, LG AI 연구원의 생성형 AI '엑사원'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다. 에이전트 코어, 지식관리시스템, 대규모 언어 모델 운영(LLMops) 등 주요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양사는 이 플랫폼에 IBK시스템의 금



LG유플러스가 금융 분야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IBK시스템과 손을 잡았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IBK시스템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권용현 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부부장(오른쪽)과 현권익 IBK시스템 대표이사(왼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융 업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금융권에 적합한 AI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 공동 기획,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상품화 및 공동 마케팅 등 협력을 확대해 금융 업무 전반의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